

\* 사진 및 글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여행한 147일간의 유럽 이야기

## 2 권

네이버 블로그 '담장위 고양이'

<http://noraneko77.blog.me/>

# 따뜻한 남프랑스와 모나코



o 여행기간 : 5.14 ~ 5.17 (4일)

o 여행도시 : 아를, 칸느, 니스, 모나코

바르셀로나의 숙소를 떠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표지판에



프랑스로 가는 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에 '부산 방향'이라고 표시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적혀 있는 모습이 생소합니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 '러시아' 혹은 '중국' 이라고 다른 나라로 가는 방향이 적힌 표지판이

등장할까요?

더욱 황당한건, 나라 간 국경을 건넌음에도 별다른 표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서울을 구분하는 표지판 보다도 작은 'France' 라고



고 적힌 작은 입간판만 서있더군요. 무언가 대단한 이정표가 나타날거라 생각하고 카메라까지 준비하고 있었건만.. 허무합니다.



유럽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는 대부분 무인정산기입니다. 문제가 있어 호출 버튼을 누르면 사람이 오기는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잡하기만 하지요. 그런데 무인정산기도 익숙

해지면 무척 편하더라고요. 이 편한 걸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 1) 고속도로 입구에서 뽑은 티켓을 1번에 넣습니다.
- 2) 요금이 표시되면 2번에 신용카드를 넣습니다. 끝.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하기 싫으면 현금을 내면 됩니다. 2번 카드 투입구 우측에 동전(Pieces)을 넣는 곳이, 아래쪽에는 지폐(Billets)를 넣는 곳이 보이지요? 저는 동전이 쌓이는데 싫어서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스페인을 떠나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는 프랑스 남부 지방의 ‘아를(Arles)’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번 유럽여행의 작은 목표 중

하나가 고흐(Vincent van Gogh)의 그림을 (모두) 보고 오는 것이었는데, 이 아를이라는 작은 도시가 고흐와 무척 사연이 깊은 곳이였기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절친한 친구 고갱과 함께 내려왔지만, 얼마 못가 불화로 그와 헤어지게 된 곳이 여기 아를이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귀를 자른 곳도, 입원했던 생 레미 정신병원이 있는 곳도, 그 유명한 ‘밤의 카페 테라스’를 그린 곳도 바로 아를입니다.



게다가 마침 반고흐 미술전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으니, 아를을 빼놓고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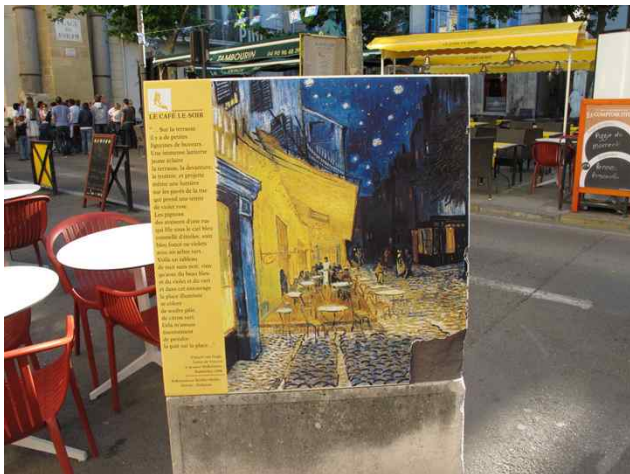


워낙 작은 마을이라 한바퀴 둘러보는데 걸어서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걷다보니 생 레미 정신병원이 나왔습니다.

고흐가 아를에 머문 15개월 동안 총 187점의 그림을 남겼는데, 이는 평균 2.5일에 한 점을 그린 꼴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다작(多作)이었다고 합니다. 고흐 특유의 노란 색감이 아를에서부터 특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그의 정신병과 연관짓는 견해도 있다고 해요.



도대체 엄마, 아빠는 이 재미 없는 마을에 왜 온걸까요? 불만이 가득한 아들 녀석. 밤의 카페 테라스 앞에서 사진을 한 장 남기려 하는데 영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마을 곳곳에 고흐가 그림으로 남긴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아쉽게도 폐장시간이 지나 들어가 보지 못한 원형 경기장, 도개교 등등.. 고흐의 흔적을 따라 걷고 있으니, 생전 불행하기

만 했던 그가 가여워 집니다. 훗날 자신의 그림이 이토록 인정받고 유명해질거라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튿날은 아를의 작은 미술관에서 열린 고흐 미술전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미술관이라 고흐의 그림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고, 네덜란드의 크뤼러밀러 미술관이나 고흐 미술관에서 순회전시 하는 그림을 받아온 듯 했습니다. 여행의 초기라 유명하지 않은 저 몇 점의 그림 마저도 무척 공들여 감상을 했는데, 나중에 방문한 고흐 미술관은 스치듯 감상 했었습니다.

아를을 떠나 칸느(Canne)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 길가의 맥도널드에서 처음 마주친 ‘이지 오더(Easy Order)’ 시스템. 주문을 받는 점원은 한 명도



없고 오로지 저 단말기 만을 통해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생소한 시스템에 무척 당황하며 주문을 했는데, 이후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여행하다 보니 동일한 주문시스템을 자주 보게 되었지요. 아마 조만간 한국에도 상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를을 떠나기 전날, 다음 여행지인 칸느의 숙소를 예약하려 조회를 해보았는데, 글썄 3성급 호텔 더블룸의 1박 가격이 백만 원을 넘더라구요. 잘 못 본건가 싶어 다시 검색을 해보았더니 죄다 백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해보니, 역시나 칸느(칸) 영화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칸느에 잡지 못하고 옆 동네에 잡았지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축제의 현장 같았습니다. 국제적인 영화제를 치루는 곳은 이런 풍경이 당연한 걸까요? 거리 곳곳은 근사하게 차려 입은 미남 미녀들과 세계 각국의 방송국 카메라로 가득했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아마 이 때를 맞춰 꼭 한 번 와보고 싶은 곳이겠죠? 아들 녀석을 무등 태우고 거리 공연을 보고 있는데, 옆에 서있던 웬 중국인(?) 아주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눈인사를 건네더군요. 여행지에서 대부분 아이에게 호의적이길래 저도 답례로 목례를 까딱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떠난 뒤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영화배우 김부선 맞지?’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작 말해주었으면 기념사진이라도 찍었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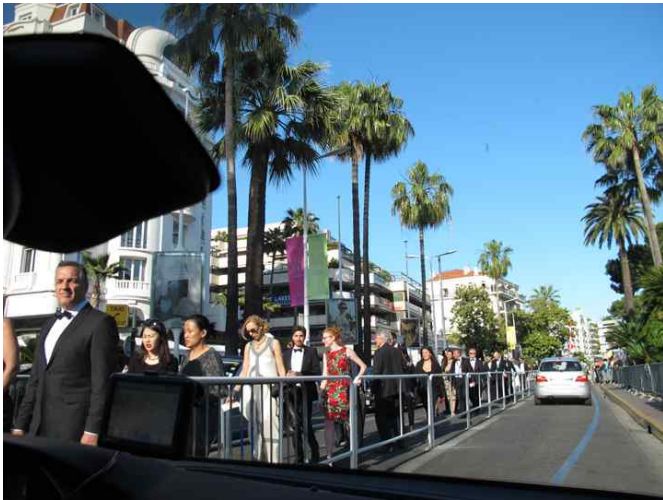




간느를 목적지로 설정할 때, 어느 곳의 좌표를 잡아야 할지 몰라 구글 맵에서 대충 커보이는 건물을 찍고 왔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이 Palais des Festivals de Cannes 였는데, 바로 칸느 영화제의 메인 행사장 이었지요. 일반인의 출입을 금했을 법 한데, 신호를 받고 갈팡질팡하는 저희에게 경찰이 수신호로 얼른 들어가라며 안내해주길래 냅다 건물 지하로 들어와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마주친 심상찮은 사람들.. 모두 영화 혹은 언론의 관계자들이 아니었을까요?



해가 지기 전에 예약해 놓은 숙소로 돌아가려 마음먹은 찰라,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하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까치발을 들며 구경을 했네요. 배우들도 레드카펫 위에서 셀카(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무척 재미있지 않나요?



시간을 더 지체하면 숙소로 가는 길이 힘들어질 것 같아, 주차장에 내려가 차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레드 카펫이 깔린 메인 행사장 지하에서 빠져 나오다 보니 줄을 서서 입장하는

배우들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오늘 정말 주차 잘한 것 같습니다.

당초 칸느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 생각이었는데, 워낙 비싼 숙박비 덕에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옆 동네, 니스(Nice)로 오게 되었습니다.



니스는 프랑스 남부의 대표적인 휴양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현대무용의 어머니 이사도라 던컨의 신혼 여행지이자 그녀가 숨을 거둔 곳이기도 하고, 몇 년 전에는 미국의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니스의 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하기도 했지요.



프랑스 남부 지역은 일년 중 300일 이상 태양이 빛나는 곳이라고 하지요. 1900년대 초, 결핵의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을 때, 당시 의사들이 처방해준 치료법은 ‘따뜻한 곳에 가서 요양을 하세요’ 하는 ‘기후 요법’ 이었다고 합니다. 습하고 추운 영국인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니스 였어요. 그래서 니스에는 ‘영국인의 거리’ 라는 해변 산책로도 있습니다.

불치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돈 많은 귀족들이 머물렀던 도시. 자연스레 도시에는 고급 호텔이 들어서게 되었지요.

고급 호텔 중에서도 네그레스코 호텔이 특히 유명한데, 오래된 최고급 호텔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맨발의 무용가 이사도라 던컨의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러시아의 화가 로만 차토프가 직접 그린, 하늘거리는 긴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호텔 앞에서 젊은 애인의 스포츠카에 올라타던 그녀는, 자동차가 출발하는 순간 긴 스카프 자락이 자동차 뒷바퀴에 빨려 들어가 목이 졸려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맙니다.



별은 따뜻하고, 해변은 아름다웠습니다.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당초 사나흘 머물 계획이었다가 2박만 머무는 걸로 예약을 조정하였는데, 막상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좀 더 느긋하게 휴양을 하고 싶습니다.



파리에서도 느낀 점이지만, 프랑스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을 무척 잘 꾸며 놓는 것 같아요. 걷다 보면, 무척 잘 꾸며진 놀이터를 수시로 만나게 되는데.. 영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전혀 구경하지 못했거든요.



니스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는 길, 그 길목에 위치한 모나코 공국에 잠시 들렸습니다. 바티칸 시국(市國)의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부자들이

사는 나라이기도 하구요. GNP가 우리나라의 세 배 정도 됩니다. 부유한 나라답게 해안에는 고급 요트들이 즐비합니다.

모나코 공국은 미국의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지요.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데뷔 5년 만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정도의 연기력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무렵 화보 촬영을 위해 우연히 찾아간 모나코에서 라이니에 모나코 왕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며 신데렐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죠.



‘한 명의 왕자와 두 명의 공주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내도 좋을 이야기이지만, 어쨌거나 노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전국민이 슬픔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라이니에 왕자는 그녀의 죽음 이후에 재혼하지 않고 여생을 자녀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모나코 왕궁에서 내려오는 길, 앞으로 닷새후에 펼쳐질 모나코 F1 경기의 포스터가 거리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아니 거리 전체가 경기장으로 꾸며진 상태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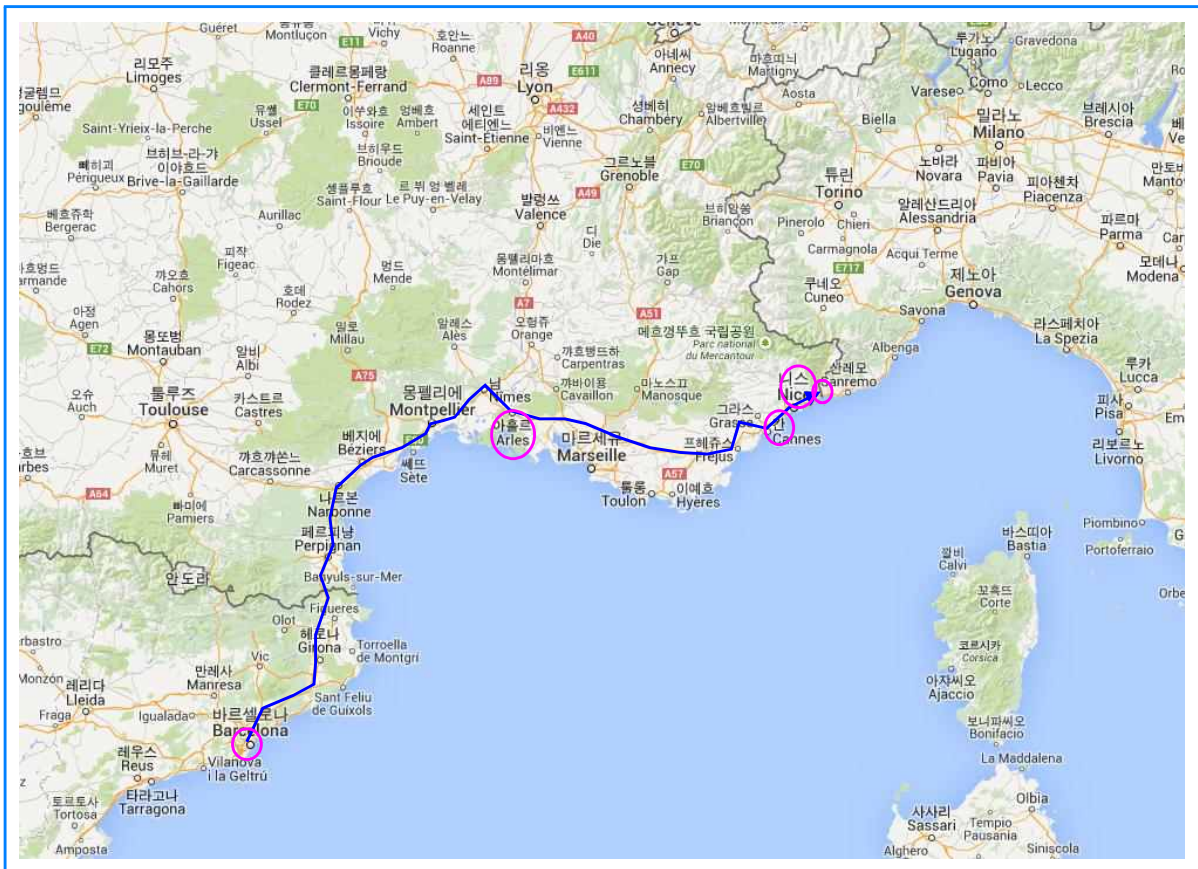
일반적인 경기와 달리, 시내 전체가 자동차 경주장이 되어 경기가 펼쳐지지 때문에 모나코의 F1은 특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칸느에서 영화제를 즐기고, 이어서 모나코로 여행을 오면 세계적인 축제를 한 번에 구경할 수 있겠더군요.

시내를 빠져나오는 길, 이미 거리는 경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잘하는 편이라고 자부하는데, 이곳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F1인지, 뒤에서 하도 경적을 울려대는 통



에 식은땀도 나고, 짜증이 울컥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 이탈리아로 넘어 갑니다.



[프랑스 남부에서의 여정]

# 역사가 숨 쉬는 이탈리아



o 여행기간 : 5.17 ~ 5.27 (11일)

o 여행도시 : 밀라노, 피렌체, 베니스,  
피사, 로마, 동페이

니스에서 모나코, 모나코에서 밀라노로 이동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3개의 나라를 거쳤네요. (프랑스, 모나코,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나타내는 이정표 역시 허무하게 세워져있습니다. 나라간 출입국 절차를 철폐한 유럽의 쉥겐 조약, 여행자를 위해 체결된 조약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여행을 하는데 무척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밀라노.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패션의 대명사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도시 자체는 구시가(Old Town)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밀라노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대부분의 도시는 재건축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정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땅을 조금만 파고 내려가

면 로마시대 유물이 우수수 발굴 된다니요? 유적보존을 위해 사유지는 국유지가 되고, 유물은 국가에 헌납되고..

도시의 중심에는 대성당(두오모)가 서있습니다. 유럽의 전형적인 구시가의 양상이지요. 밀라노의 두오모는 화려한 외관으로도 유명하지만, 내부에 레



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벽화가 그려져 있어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두오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의 네 제자를 기념하는 동상이 서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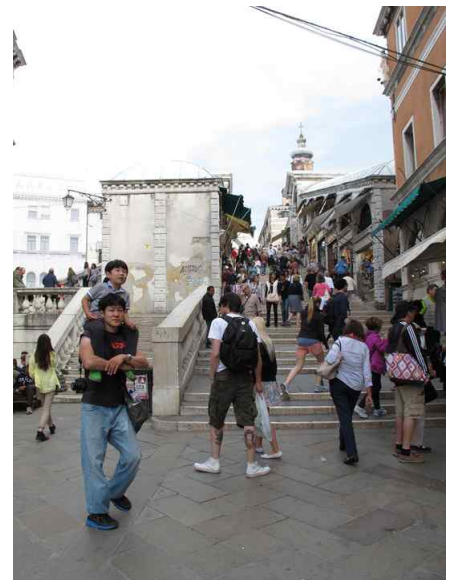
1500년 대 르네상스 시기, 밀라노에서는 다빈치를 초빙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에 얽힌 일화도 많이 전해지고 있구요. 바르셀로나가 가우디의 도시라면, 밀라노는 다빈치의 도시가 아닐까요?



패션의 도시답게(?) 시내 아케이드에는 황금빛이 번쩍이는 명품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어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지.. 하지만 여행경비를 아끼기 위해 눈물나는 노력을 하고

있던 저희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곳이었지요.

밀라노에서 조금더 동쪽으로 가면 물의 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베니스)가 나옵니다.



와이프와는 7~8년 전에 한 번 다녀갔던 곳이라 빼고 지나칠 생각도 했었는데, 아들 녀석에게 베네치아는 꼭 한 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OO의 베니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수로만 조금 있으면, 운하만 조금 있으면 ‘어느 어느 도시의 베네치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 엉터리 말고, 아들 녀석에게 진짜 베네치아를 한 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곤돌라도 타봤습니다. 전에 왔을 때에는 가난한 배낭여행자에게는 사치라며 안타깝겼거든요. 미로같은 수로를 지나는 동안 아들 녀석은 관광객들에게 손을 흔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좋은 추억을 남기고 온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잘 한 것 같아요. 베네치아가 아니면 해보지 못할 경험이었으니까요.



이제 이탈리아의 남쪽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 첫 번째 도시는 피렌체(플로렌스)입니다.

피렌체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 라는 책입니다.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소설 속 배경이 바로 피렌체 였지요. 그래서 피렌체에 가면 두오모에 꼭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소설 속 주인공이 사랑했던 옛 여자친구와 이런 약속을 합니다. 10년 후 너의 생일에 두오모에서 만나자고.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있던 남자는 두오모에 올라 해가 질 무렵까지 여자를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관광객이 묻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는거냐.. ‘사랑하는 여자를 10년 쯤 기다리고 있다’ 라는 대답을 읽으며 저도 참 가슴이 먹먹했었죠. 그래서 저도 올라보기로 했습니다. 연인(戀人)들의 성지 두오모에..



그런데 이거 참, 이렇게 계단이 많은 줄 알았더라면 아마 애초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고 올라도, 계단이 끝이 보이질 않더군요.

다들 숨을 헐떡이며, 흐르는 땀을 닦으며 힘겹게 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정상을 보고 내려오던 관광객이 저희 쪽을 향해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Cheer up! almost end.)’ 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희 앞에 있던 젊은 서양 처자가 숨을 몰아쉬며 ‘저 계단 좋아해요.. (I like stairs..)’ 라고 대답해서 다들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정상에 올라왔지만,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집사람과 신나서 뛰어 다니던 아들 녀석. 아들 녀석은 왜 썩썩 하나구요? 제가 안고 올라왔거든요! 저야 말로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왜 한나절을 앉아서 기다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렸거나 내려갈 엄두가 안나서요! 어쨌거나 두오모 위에서 내려다 보



는 피렌체의 풍경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번 유럽여행을 하며 중국인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일본인 관광객은 그리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도시에

일본인들이 몰려 있더군요. 바로 몽생미셀과 피렌체 였습니다. 피렌체로 결혼식(사진촬영)을 온 커플부터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까지 보았어요. 피렌체는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도시인가 봅니다.



사흘 머무는 동안 피렌체의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지도가 필요 없을 만큼요. 피렌체의 가죽제품이 유명하다길래 가죽 공방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구요.



그렇게 우연히 찾은 공방에서 손으로 한 땀 한 땀 꿰맨 가죽지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내려갑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잠시 피사에 들르기로 했어요.



피사의 사탑 근처에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걸어서 5분 거리 정도 되는 노상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인 주차정산기가 있네요. 이용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방법입니다.

- 1) 동전을 넣다보면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 납니다.  
(한개 넣으면 15분, 두개 넣으면 30분, 세개 넣으면 45분..)
- 2) 원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돈을 넣고,
- 3) 발급(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주차권이 나옵니다.
- 4) 주차권을 운전석 유리창 앞에 놓습니다.

주차요원이 점검을 하다가, 무인 주차정산기의 영수증을 놓지 않거나, 영수증의 표기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보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유럽의 지하철은 검표원이 없이 양심껏 이용을 하게 하다가, 불시에 티켓검사를 해서 수십 배의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이른바 본보기성 징벌 시스템이랄까요? 노상주차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주차요원이 검사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피사에 사탑 말고 딱히 볼거리가 없지만, 저 유명한 건축물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욕심에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재미있는 포즈로 사탑을 밀거나, 받치고 있는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는 볼거리였습니다.

계속 차를 달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집사람과 몇 년 전 로마를 관광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짧게 2박만 하고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첫날은 저녁에 도착을 하였고 휴식만 취하고, 다음날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티칸 박물관이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무료개방을 하는데, 방문한 날이 마침 그 날이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틈에서 한 시간 가량 줄을 서야 했지요.

오래 전 기억이 되살아나며, 눈에 익은 작품이 반갑게 보였습니다. 아이와 박물관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둘러보았어요.



바티칸 박물관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 많은 곳이지요. 아테네 학당, 천지창조.. 구경을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예전에는 바티칸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연결 회랑을 지나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새 동선을 바꾸어버린 건지 그냥은 갈 수 없게 되어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다시 한참을 걸어 성베드로 성당까지 걸어 왔지요.



그런데,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어마어마 하더군요. 이미 박물관에서 다리가 아프게 걸어온 터라 또 한참을 기다릴 자신이 없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꼭 다시 한

번 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천사의 성을 지나 로마 시내까지 걸어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걷다 보면 스페인 광장과 트레비 분수 등 영화 로마의 휴일





아프도록 걸어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콜로세움 이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 영화에서 많이 보던 곳이지요. 그 앞에서 사진을 한 장 남겨주고 싶었어요.

이제 로마에서의 마지막 도시, 남부 해안에 위치한 폼페이로 향해 갑니다. 남부 이탈리아의 풍광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니, 가는 길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폼페이는 AD 79년, 나폴리 연안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 폭발로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덮여 많은 사람들이 미처 피난을 하지 못한 채 함께 묻히고 말았죠. 당시 정황은 폼페이 인근에 있던 로마의 정치가 '폴리니우스'에 의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폼페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2천명 정도가 화산재에 파묻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재앙이었는지, 발굴된 유적을 보면 화덕에 굽고 있던 빵과 마시던 음료까지 그대로 발



견되었다고 해요. 로마황제 '티투스'는 폼페이의 재난을 구조하기 위한 병력과 함선을 급히 보냈지만, 유독 가스와 연기 등으로 많은 병사가 사망하여 구조 및 복구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도시는 화산재에 파묻혀, 잊혀진 도시가 되고 말았지요. 이후 16세기, 수로를 건설하던 중 우연히 유적의 일부가

발견되어 잊혀졌던 도시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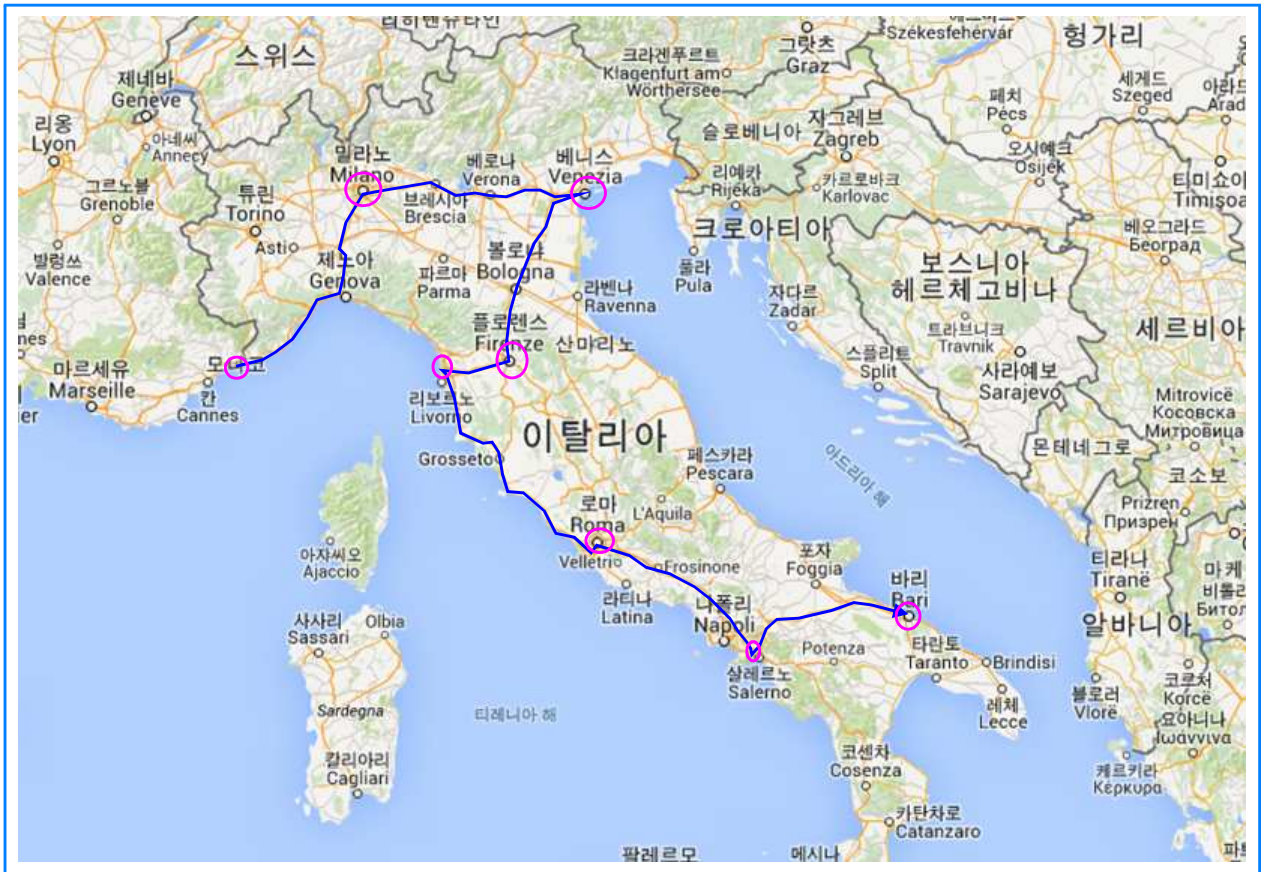
18세기 중반, 당시 이탈리아 남부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부르봉 왕조에 의해 유적(문화재) 약탈이 자행되었고.. 19세기가 되어서야 통일 이탈리아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폼페이 유적이 얼마나 넓은지, 3일 자유입장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 보는 건 힘들다고 해요.

폼페이 곳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미라를 볼 수 있는데, 실제 사람의 미라는 아니고, 사람이 묻혀있던 흔적(굳은 화산재 사이)에 석고를 부어 넣어 사망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끔 복원해 놓았다고 합니다.

집사람에게 농담으로 ‘기념품 가게에 가면 죽은 사람 인형을 팔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한마디 던졌는데, 실제로 노점에서 팔고 있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제 이탈리아를 떠나 크로아티아로 향합니다. 바리(Bari)에서 출발하는 페리를 타고 아드리아해를 건너면 크로아티아 남부의 성벽 도시, 두브로브니크로 넘어 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여정]

# 아름다운 풍경의 크로아티아



o 여행기간 : 5.28 ~ 6.7 (12일)

o 여행도시 : 두브로브니크, 스플리트, 플리트비체,  
자그레브

이탈리아 바리(Bari)에서 저녁 무렵 출발한 페리는 다음날 이른 아침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 깨어 선실 밖을 나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을 꾸려 나갈 채비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가 차를 거의 맨 앞에 실어 놓은 터라, 뒷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할까 걱정되어 세수도 하지 못한 채 달려 나왔습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닷새 머물 예정이라 취사가 가능한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짧은 기간이지만, 내 집처럼 편히 지낼 수 있다는 점과, 직접 장을 봐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냄비에 쌀밥을 하고, 고기를 팬에 구워 고추장에 찍어 먹고 있노라면 (거기에 시원한 맥주 한 잔 까지!) 여행의 피로가 한 순간 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진 크로아티아를 처음에는 계획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건 이곳이 '옛 유고연방'에 속했던 나라이기 때문이었죠.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은 버려야 하겠지만, 유고내전 당시 잔인했던 인종청소 문제라던가, 세르비아계의 학살 등 유고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유럽, 그 중에서도 유고연방 지역의 여행만큼은 솔직히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선입견에서 벗어나, 크로아티아를 여행했던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크로아티아는 최근까지 공산권 국가(구 유고연방 소속) 였습니다. 1990~1991년, 슬로베니아와 더불어 유고연방 탈퇴 및 독립을 선언했죠.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당시 유고연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르비아로 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유고연방에서는 슬로베니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내전 및 크로아티아 내전이 발발했고,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그 몇 배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NATO 및 UN이 개입할 때까지 세르비아인에 의한 '잔인한 인종청소'가 이루어 지기도 했구요.

지금은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되어, 지난 2013년에는 EU에 가입을 했을 만큼 그때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요.



유럽 여행에 있어 크로아티아가 참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셴겐 조약’ 이라는 것을 맺고 있어, 이 나라들에는 (출국일 기준 180일 이내에) 누적 90일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크로아티아는 아직 셴겐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크로아티아에 머문 기간은 셴겐 체류일에 합산되지 않았지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크로아티아가 EU 가입 이후 셴겐조약 가입까지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이런 이점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브로브니크를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닥의 대리석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에 밟혀 진주빛으로 맨들맨들 빛이 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구시가의 규모가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작아 다소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별을 찍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좋았습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마 성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고 내전 당시 폭격 위기에 처한 두브로브니크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각지의 지성들이 몰려와 손을 잡고 성벽 앞에 섰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성벽에 올라보았습니다.

한시간 반 정도 천천히 산책을 했어요. 감빛 기와들이 펼쳐진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면서도 웬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마녀 배달부 키키’의 원화배경이 이곳 두브로브  
니크라고 했던가요?



두브로브니크 성내(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스프리산이 바로 성곽 뒤편에 솟아 있어요. 보통은 케  
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는 차를 끌고 정상까지 올라갔  
습니다. 다행히 가는 길이 잘 정비 되어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전망대와 카페가 있는데, 아름다운 두브로브

니크 성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 잔의 시간은 무척 낭만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카페에 앉아 한참동안 일기를 쓰고,  
저는 아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城內)는 한 두 시간이면 한바퀴를 둘러 볼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구시가를 벗어나 해안에서 수영을 즐기기도 하고, 배를 타고 인근의 로크룸 (Lokrum)섬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로크룸섬은 야생공작이 돌아다니는 섬으로 소개가 되어있어 찾아갔습니다. 관광객을 졸졸 따라다니며 먹이를 받아 먹는 걸로 봐서는 야생이라기 보다는 방목되어 있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작은 해변도 있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브로브니크 구시가(城內)로는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 외곽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세 곳의 거리는 걸어서 5분 정도인데 주차 요금이 천차만별이라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1) 가장 왼쪽은 사설 주차장입니다. 4시간에 190쿠나(38,000 원) 이니까 1시간에 9,500원 정도 합니다. 2) 중간 사진은 큰길가의 공영 노상주차장이고, 1시간에 20쿠나(4,000원) 합니다. 3) 가장 오른쪽은 큰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의 공영 노상주차장입니다. 1시간에 5쿠나(1,000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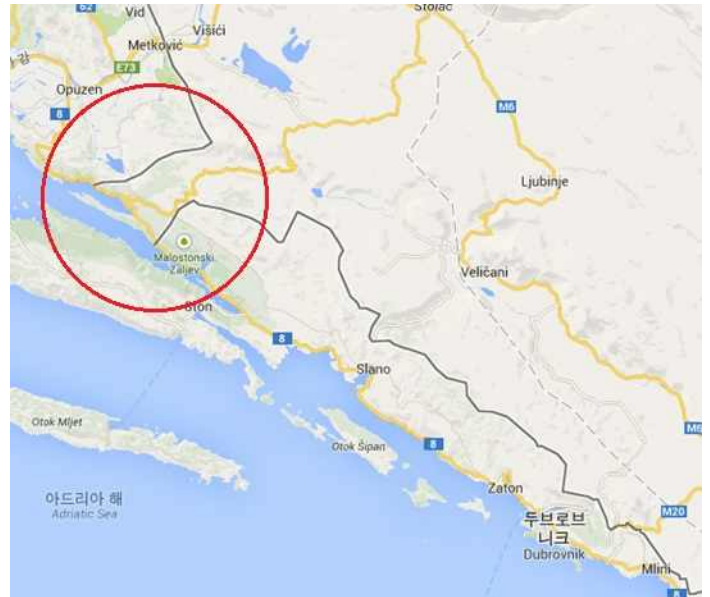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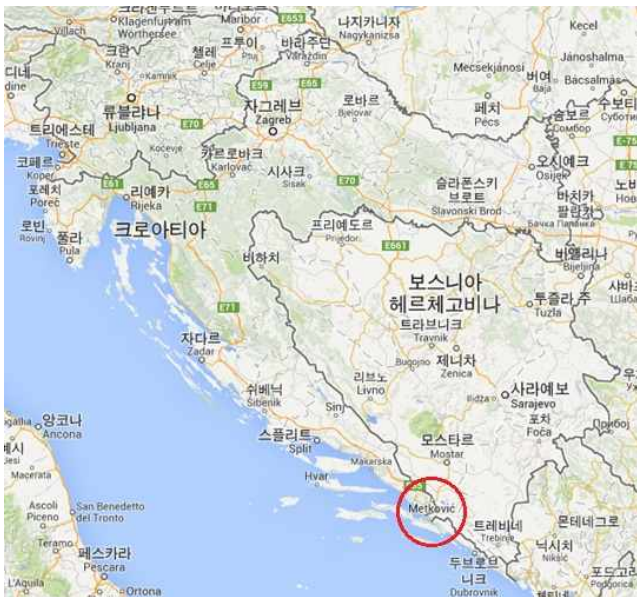
사설 주차장과 가장 저렴한 공영주차장의 차이가 대략 9배가 넘습니다. 4시간을 주차한다고 가정하면 34,000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조금만 다리품을 팔다보면 여행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지요.



두브로브니크에서의 아쉬운 밤을 뒤로 하고, 이제 북쪽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 첫 번째 도시는 스플리트(Split) 입니다.



크로아티아는 국토는 위쪽은 넓고, 위아래는 남과 북으로 가늘고 기다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안하게도, 두브로브니크에서 크로아티아의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국경이 잘려 있어서 보스니아를 지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가 유고 연방에서 탈퇴할 당시, 두 나라  
 간에 모종의 협약이 있었던걸까요?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의  
 우방이 되는 조건으로 해안선을 조금 요구 했다던가.. 크로아티  
 아에서는 유서가 깊은 두브로브니크를 내어줄 수 없으니 어중간  
 하게 중간의 영토를 일부 내어준 게 아닐까요? 그 정도로 깊은  
 역사적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니 그저 짐작만 해볼 따름입니다.

어쨌거나 크로아티아(두브로브니크)를 벗어나 보스니아의 국경  
 으로 넘어 갔구요, 약 30분 후 다시 크로아티아에 재입국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여권에 크로아티아에  
 배로 타고 입국한 도장과, 자동  
 차로 입국한 도장이 함께 찍혔  
 습니다.





스플릿의 구시가는 그 규모가 정말 작았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습니다. 청과시장에서 체리를 사와 열주광장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구요.



숙소를 스플릿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마르얀 언덕 부근에 잡았습니다. 그리 높은 언덕은 아니었지만, 시원한 전망이 펼쳐져서 보기에 좋았어요.



이틀 간 머물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는데, 이곳 벼룩시장에서 재미난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녹이 파랗게 쓴 동전을 나무케이스에 넣고 판매하는 상인이 있길래, 무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동전이라고 하더군요. (Greek coins & Roman Co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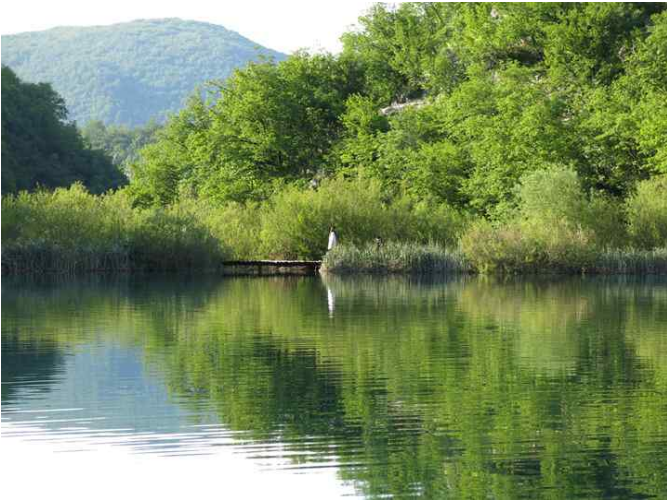
신기한 마음에 가짜(이미테이션) 아니냐고 물어보았더니, 정색을 하며 진짜 동전이랍니다. 가격은 개당 2~3만원 정도 했구요. 기념으로 하나 구입하고 싶어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집사람이 와서 팔을 잡아끌더군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할거냐고 하면서요.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하나 사올걸 그랬나봐요.

다시 차를 달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숙소를 공원에서 운영하는 산장 느낌의 국영 호텔에 잡았는데,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호텔 투숙기간 동안 추가요금 없이 공원 입장 기간을 연장시켜 주어 이틀 동안 편히 머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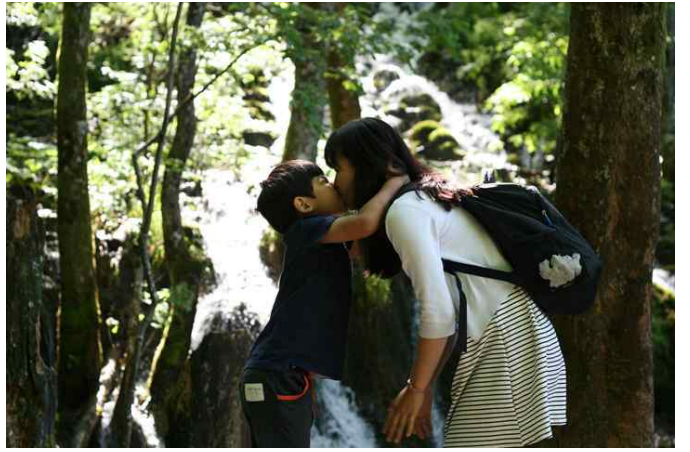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자연 풍경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으로 정확히 전달이 될런지 자신이 없네요.





옥빛의 푸른 물은 바닥이 보일만큼 투명했고, 고기들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날은 여섯 시간 가량 산책을 했는데, 정말 시간이 가는 걸 모를 만큼 좋았어요.





공원이 굉장히 넓어서 하루에 다 둘러 보는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는 아이와 함께 쉬엄쉬엄 둘러보다 보니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틀 동안 열 시간 정도 걸었는데도 다 못 본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곳을 찾게 된다면 부디 시간에 쫓기듯 보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풍경을 즐기길 바랍니다. 도시락 싸 오는 것도 잊지 말구요!



플리트비체를 떠나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 왔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그다지 볼거리가 없다는 평에 짧게 들렀다 가는 경유지로 일정을 잡았는데, 생각 외로 괜찮아서 살짝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숙소를 자그레브 대성당 인근의 아파트로 잡았습니다. 시내 중심부인 반엘라지치 광장, 돌락 시장과 걸어서 5~10분 거리로 가까워, 이른 아침 시장에 들러 체리도 싼값에 샀습니다. 1Kg에 3천원 정도 하네요.



자그레브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렴한 물가 였습

니다. 관광지 물가가 아니라 ‘사람을 깜짝 놀래키는 물가’ 라는 표현도 보았어요.



자그레브 대성당에 들러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번 여행 중 성당이 보이면 되도록 안에 들어가 짧게나마 기도를 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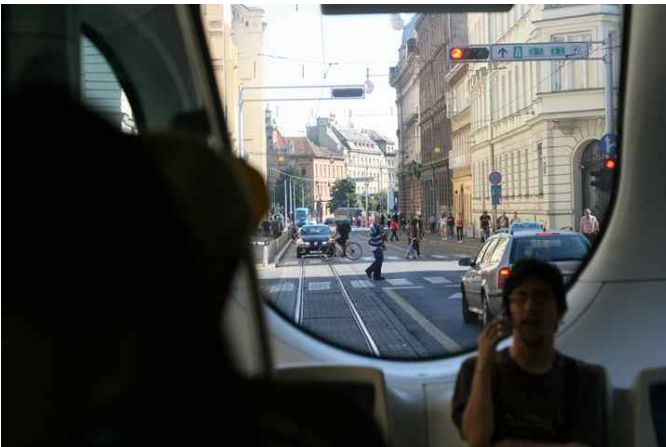
그리고 조금 더 걸어서 스톤게이트로 갔어요. 1731년 대화재 때, 성모님을 그린 성화만 빼고 모든게 타버렸다고 하지요. 그후 이 그림에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기도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옆에는 레고 성당으로 잘 알려진 성 마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여 저희도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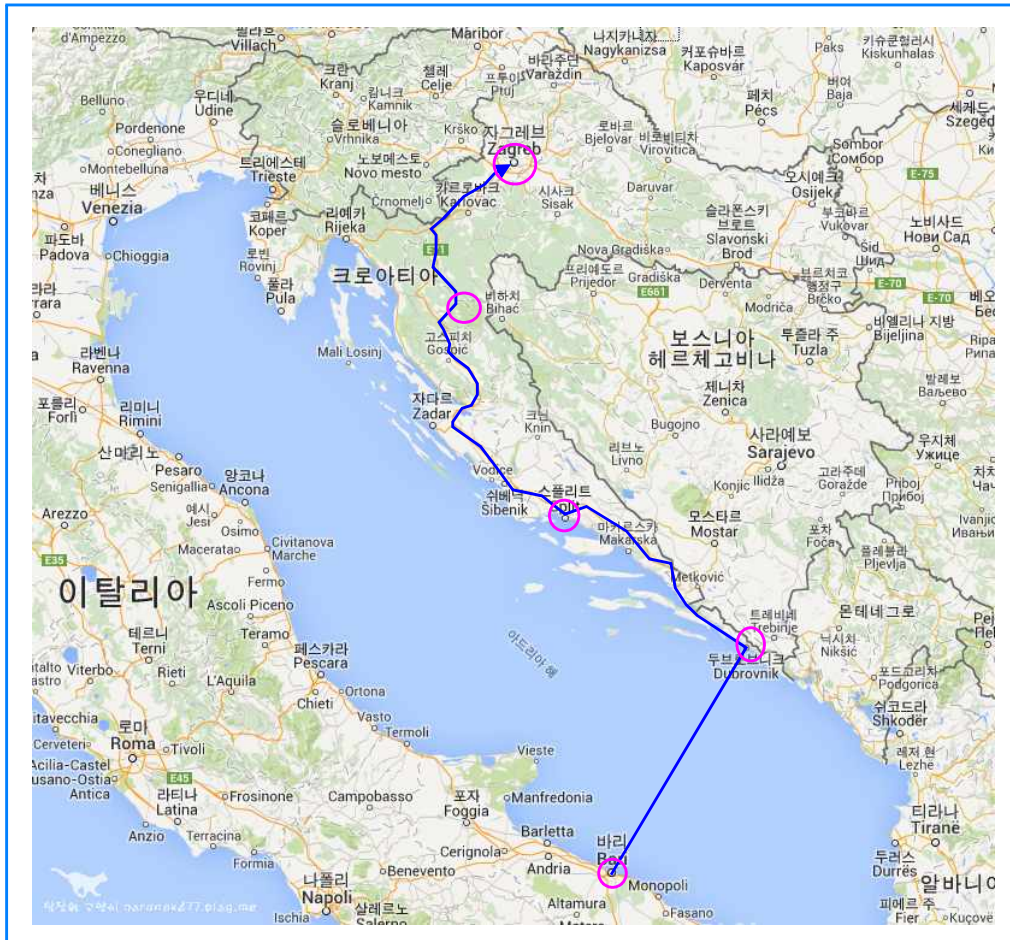


반 엘라지치 광장에서 거리공연 구경도 하고, 그 앞에서 무작정 트램에 올라타 자그레브 시내를 한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크고, 몸매가 늘씬해 마치 모델 같았습니다. 스타일이 무척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크로아티아를 떠나 알프스의 끝자락, 슬로베니아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득 채웠어요. 크로아티아의 국기 문양이기도 하지요. 흰색과 빨간색의 체크무늬를 이제 당분간 볼 수 없겠군요.



[크로아티아에서의 여정]

# 알프스의 끝자락, 슬로베니아



o 여행기간 : 6.7 ~ 6.9 (3일)

o 여행도시 : 블레드 (보히니, 빈트가)



크로아티아 국경을 지나 슬로베니아로 진입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쉥겐조약 미가입 국가이지만, 슬로베니아는 쉥겐가입 국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자동차 등록증과 여권을 건네주었더니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눈으로 인원과 얼굴을 체크하고 도장을 광광 찍어주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자마자 비넛(Vignette)을 파는 곳이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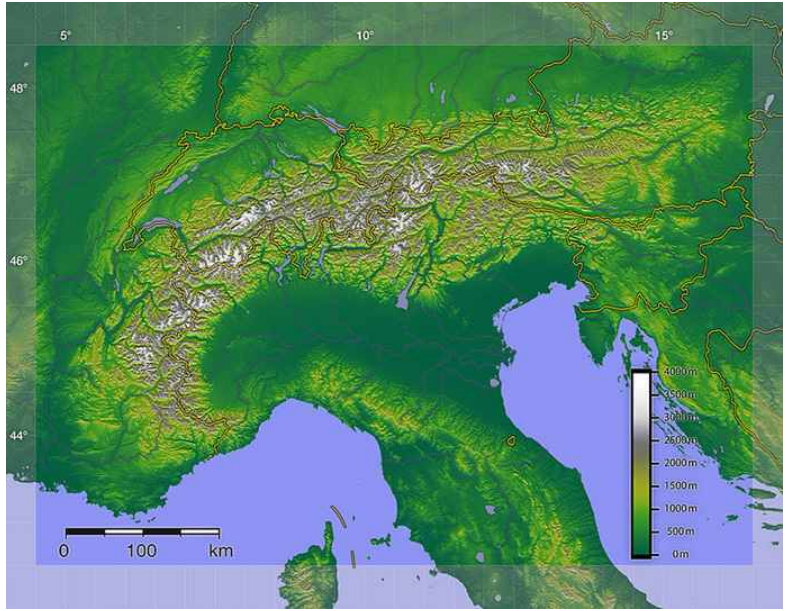
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 구입을 했습니다.

비넷은 ‘고속도로 정기이용권’입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 주로 동유럽권 국가에서 도입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방법입니다.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톨게이트를 세우는 대신 일주일, 보름, 한달, 경우에 따라서는 일년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을 구입하게 합니다. 만약 비넷을 부착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 단속에 걸리면 본래 금액의 30~50배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하지요. 그러니 살 수 있을 때 얼른 사두는 것이 맘 편하지요. 보통은 고속도로 입구 근처의 주유소, 상점 등에서 판매를 합니다.



국경을 지나 두 시간여 달려 블레드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블레드 호수에 온건 이곳이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유럽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슬로베니아에 무슨 알프스가 있어?’ 라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프스 산맥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슬로베니아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산맥



입니다.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지역은 알프스 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지요.

슬로베니아는 참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200만명 정도 되고, 국토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1/11 정도 수준입니다. 전라도 면적과 비슷하대요. 그래도 GNP도 높고(약 13,000불), 평야와 아드리아 바다, 알프스 산맥을 모두 끼고 있어 유럽의 미니어처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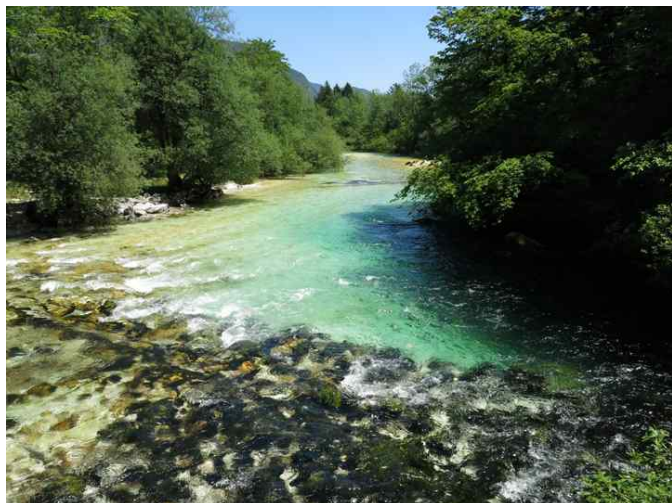
블레드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슬로베니아 아가씨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날에도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한쌍의 커플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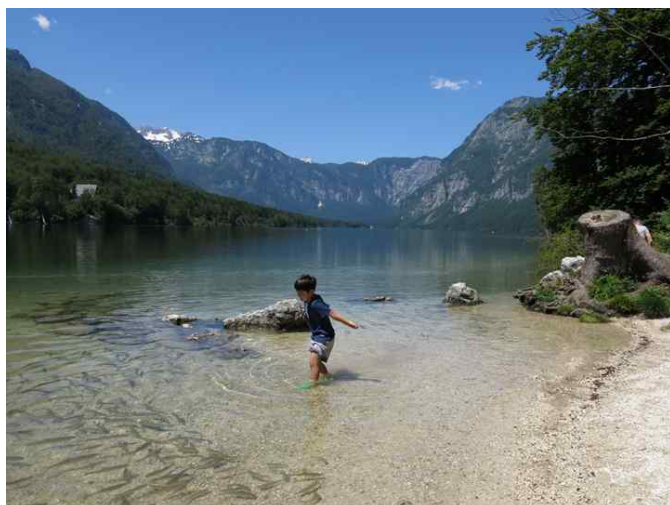
블레드 호수 주위를 한바퀴 산책했습니다. 백조와 오리를 열심히 쫓아다니던 아들 녀석이 그만 다리가 아프다며 목마를 태워달라고 조르네요. 이번 여행 내내 이 녀석을 안고, 무등 태우고 다니느라 군살이 쏙 빠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길, 늘 하던대로 생수를 한뭇음 사들고 들어가는데 호텔 사장님이 깜짝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그건 왜 사셨

어요?’ 당연히 마시려고 샀지요, 라고 대답했더니.. ‘수도꼭지만 돌리면 훨씬 좋은 물이 쿵쿵 쏟아지는데 그걸 도대체 왜 사셨을까?’ 라며 심히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 이유를 다음날 보히니(Bohinj)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사장님이 꼭 가보라며 지도에 동그라미를 몇 개나 쳐주신 보히니 호수. 이 호수는 알프스의 만년설이 흘러내려 형성된 곳입니다. 발목이 잠겨 나갈 것처럼 차가운 물, 생수병을 쏟아부은 것처럼 맑고 투명한 물이 산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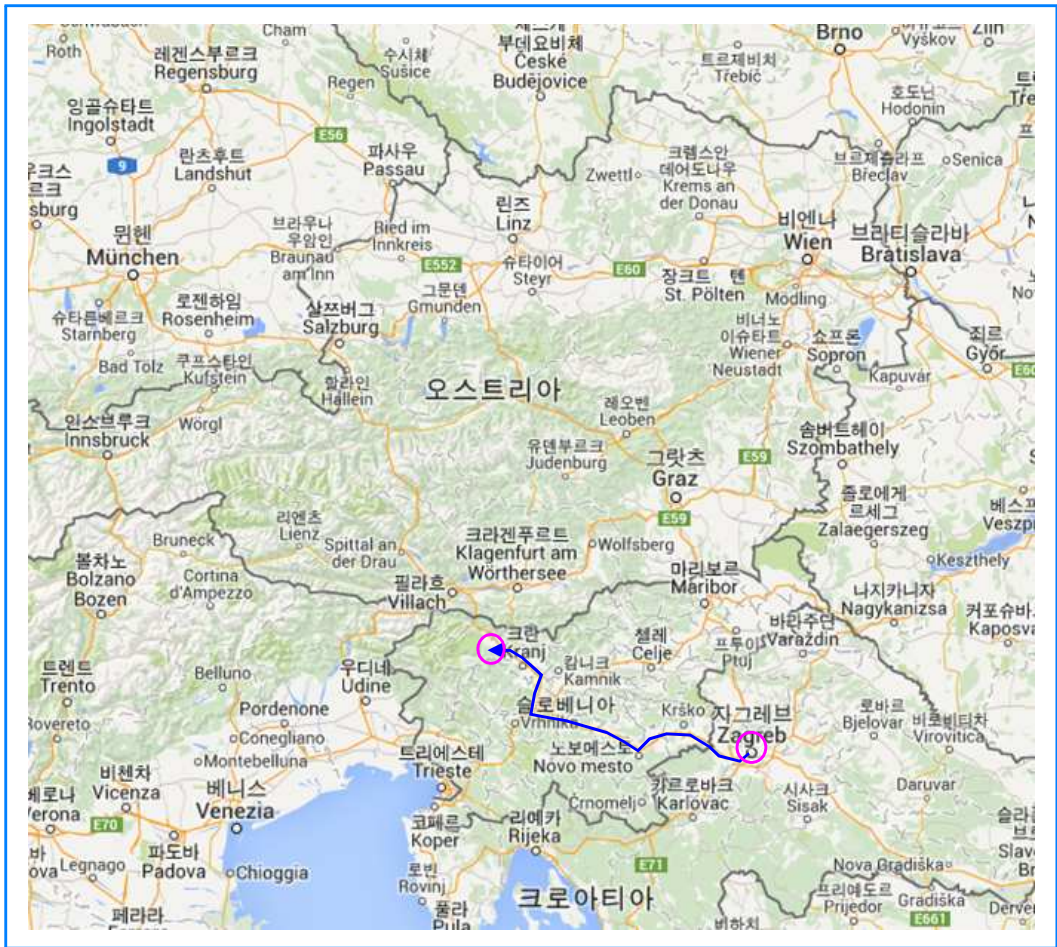


잘 알려진 블레드 보다, 이곳 보히니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게 된다면 보히니 쪽에 숙소를 잡고 싶더군요. 내친김에 사장님의 또 다른 추천 장소, 빈트가(Vintgar)로 이동했습니다. 보히니, 빈트가 모두 블레드에서 차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빈트가 계곡은 2시간 정도의 트래킹 코스를 갖춘 국립공원 이  
 있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흘러 내리고 있는데, 경관  
 이 꽤 좋았습니다. 아마 플리트비체를 보고 오지 않았더라면 걷  
 는 내내 계속해서 감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슬로베니아 역시 짧게 보고 가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곳입  
 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에서 머물 수 있는 90일을 알차게 보내  
 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의 여정]

# 저울츠카머굿, 경쾌한 오스트리아



o 여행기간 : 6.9 ~ 6.13 (5일)

o 여행도시 : 고사우, 할슈타트, 잘츠부르크

슬로베니아를 지나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고속도로 국경에는 톨게이트가 있어 강제로(?) 비넷을 구입하게 하더군요. 비넷 외에도 터널을 지날 때 마다



통과료를 별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산맥 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거라 6~7km 터널도 몇 번씩 통과했어요.



‘이곳이 오스트리아 구나!’ 라는 감탄을 하게 만든 굉장한 경치의 고속도로 휴게소. 푸드코트의 수준도 패밀리 레스토랑 버금

갔습니다. 다만, 가격도 패밀리 레스토랑 수준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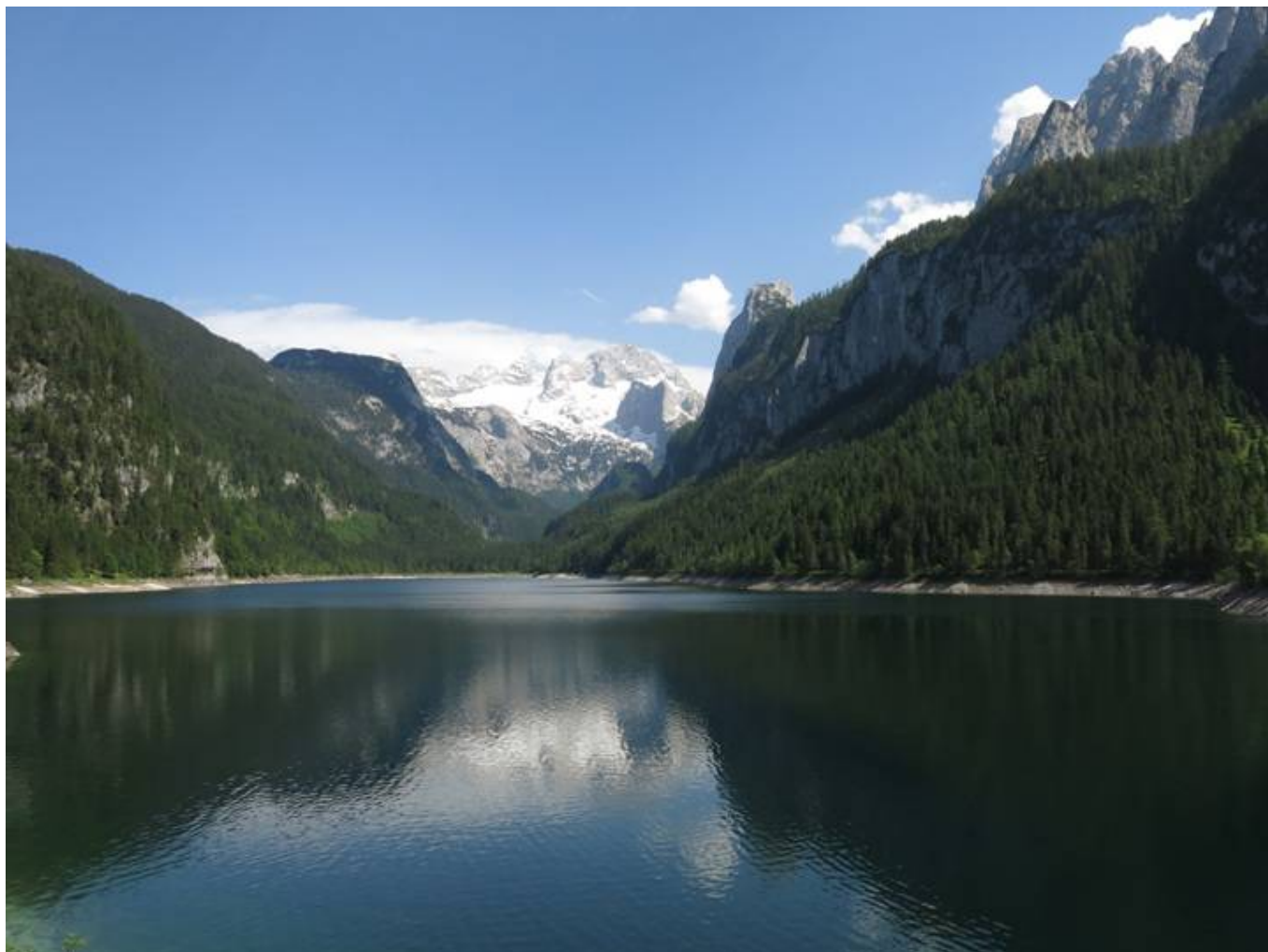


고사우(Gosau)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산촌 농가의 주인이 일층은 본인 가족이 사용하고, 이층은 관광객들에게 민박을 하는 곳이었는데, 값도 저렴하고 취사까지 할 수 있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사우는 산 중턱에 있는 호수도 유명하지만, 잘 알려진 관광지 할슈타트와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라, 저렴한 가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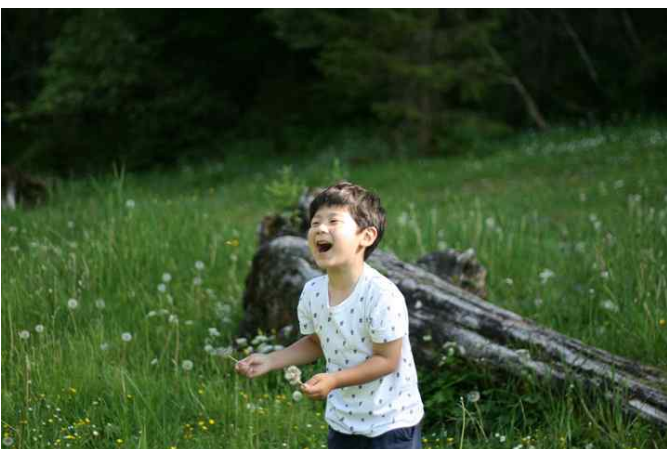
팔츠캄머굿에서 숙박을 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은 곳이기에 더욱 좋았지요.



물이 아직 차가운데도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들 녀석도 주저 없이 풍당 뛰어 들더군요. 덜덜 떨며 물장구치는 녀석을 살살 달래 옷을 갈아 입히고 호수 주위를 한바퀴 산책 하였습니다. 마주 오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산책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차가운 시냇물을 손으로 떠 목을 축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 오면 이렇게 고즈넉한 산과 호수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의 블레드와 오스트리아의 고사우를 동선에 포함시켰어요. 열흘 정도 머물며 낚시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싶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그런 여유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다음날은 잠시 차를 달려 할슈타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라마와 CF로 잘 알려진 곳이지요. 짤츠카머굿 (Salzkammergut)을 대표하는 호수이기도 하구요.



사진으로 많이 보았던 호수 주변의 마을은 걸어서 한 시간이면

한바퀴를 다 돌만큼 작았지만,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화  
보 같은 사진이 나올 만큼, 마치 촬영 세트장처럼 아름다웠습니  
다. 달리 볼거리가 없어서 유난히 사진을 많이 찍기도 했구요.



할슈타트에는 소금광산이 있어서 그런지, 알프스를 끼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석이나 수정 따위의 광  
물을 파는 상점이 많았어요. 그 작은 고사우 호수 마을에도 그  
런 상점을 두 곳 이나 보았거든요. 이번 여행에서 이런 저런 화  
석을 고르고 구입하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라 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고사우와 할슈타트를 떠나, 영화 '사운드오브 뮤직'의 촬영장소로도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쾰츠부르크 (Salzburg)로 향했습니다.



쾰츠부르크 숙소에 체크인 하는데 직원이 물어보더군요. '쾰츠부르크 카드'를 구비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말해달라구요. 저 카드(1일권)을 구입하면 24시간 동안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쾰츠부

르크 성(城), 모차르트 생가(박물관), 대성당, 운터스베르크 케이블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와 함께 느긋하게 여행을 하는 편이라 1일권 같은 건 그동안 이용하지 않아왔는데, 혜택이 너무 많아 귀가 솔깃하여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쾰츨부르크 카드의 노예가 되어, 하나라도 더 봐야 한다는 의무감에 지친 몸을 끌고 돌아다녀야 했지요.

쾰츨부르크의 도로 위는 거미줄처럼 전선이 뒤엉켜 있습니다. 일단 시내버스가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에는 전기줄이 실타레 같이 엉켜 있구요,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까지 모두 공중에 대롱 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숙소 앞에서 버스를 타고 알프스 산맥의 하나인 운터스베르크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을 타고 해발 1800미터의 높이까지 아찔하게 올라갔어요.



산 아래는 이제 여름이 시작 되었는데, 산 위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고, 곳곳에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니 청년 두 명이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고 있더군요. 빵조각을 공중으로 던지면 획 날아가 먹이를 받아먹고는 다시 돌아와 빵조각을 기다립니다. 아들 녀석이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으려니 한 번 해보라며 빵조각을 떼어주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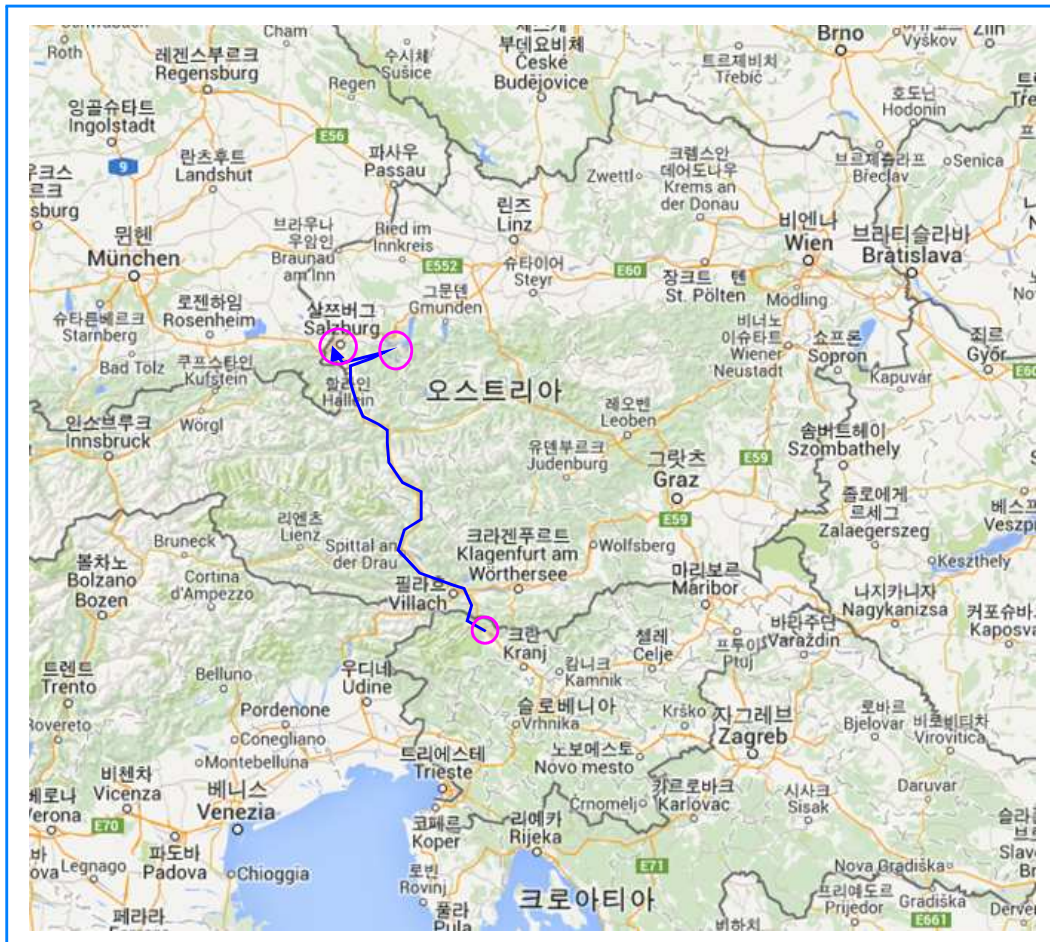
잘츠부르크 시내도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박물관도 많고, 특히 아기자기한 상점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교한 나무 조각품을 파는 가게라던가, 일년 내내 크리스마스 달걀만 파는 가게라던가..



모차르트 박물관도 진지하게 몰두해서 관람했습니다. 친필악보부터 연주했던 악기, 주고받은 편지 등이 예전에 살았던 생가에 전시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린 모차르트가 신동(神童)이라는 상명으로 팔리며 온 유럽을 여행했던 궤적을 그린 지도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지나왔던 여정과 비슷했거든요.



쾨츠부르크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하루 이틀 더 머물고 싶었는데, 머물고 있는 숙소는 예약이 딱 차서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가격의 적당한 숙소를 찾다 그만 포기하고, 다음 목적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여정]